

프랑스 혁명 다시 읽기와 자서전 쓰기: 윌리엄 워즈워스의 『서시』

박미경

워즈워스의 비평에서 프랑스 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워즈워스라는 개인이 공적 역사를 추진시킨 주체로서보다는 역사의 흐름을 철저히 경험한 주체로서 그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자서전의 기획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1850년판 『서시』(The Prelude)에서 “시인의 정신의 성장”에 프랑스 혁명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역으로 자서전을 통한 자아 재구성에서 워즈워스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 혁명을 다룬 부분(9권, 10권, 11권)은 경험을 통해 얻은 통합된 상상력이라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추적하는 이 작품에서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워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을 자신의 정신적 위기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함으로써 손상된 상상력을 치유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인의 정신의 성장”이라는 초역사적일 수도 있는 주제에 역사성을 부여해서 구체성을 잃지 않고 읽으려는 시도에 적합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워즈워스가 어린 시절부터 자연으로부터 받은 상상력에 의해 내화한 인간 본성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훼손되더라도 그 회복의 원천이 자연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워즈워스가 프랑스 혁명에 동조한 것은 그 이념이 전에 이미 자신에게 내화된 인간 본성의 올바름을 위한 생각에 부합했기 때문이고, 혁명이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때 그러한 움직임에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것도 인간해방과 도덕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혁명의 급류 속에서 도덕적 공황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내화된 올바름의 본성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다.

『서시』의 내러티브 구조는 “강물”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바, 시인이 서술해 나아가는 방향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진행 방식과 균열을 일으키며, 이들 사이에 생기는 긴장 관계는 『서시』의 독특한 서술양상을 만들어 낸다.¹⁾

이는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를 해석할 때,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보는 동시에, 과거에 비추어 글쓰고 있는 현재의 자아를 해석하는 자서전의 작업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다. 워즈워스는 과거에 경험한 자아와 현재 시를 쓰고 있는 자아, 두 의식(Two consciousnesses, conscious of myself/And of some other Being. 2: 32-33)²⁾의 흐름을 모두 자서전 안에 담아 『서시』를 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폴 드 만의 「얼굴 지우기로서의 자서전」이라는 글을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폴 드 만은 자서전에서 글을 쓰는 주체인 “텍스트의 저자”(the author of the text)와 대상인 “텍스트 안의 저자”(the author in the text) 사이에 거울 관계가 형성됨을 지적하였다.³⁾ 그는 어떤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듯이, 삶이 자서전을 생산한다는 논리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 즉, 삶을 생산하며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서전의 기획이며, 작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기술적인 요구에 의해 지배되어 모든 면에서 언어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de Man 69). 폴 드 만의 이러한 논리는 대상이 되는 과거의 자아와 주체인 현재의 자아 사이에 “지시적 생산성”(referential productivity)이 작용한다는 말로 자서전 논의에서 타당하다. 『서시』의 창작 과정에서 워즈워스는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기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글쓰는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해석하면서,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만드는 역동적 관계가 자서전을 전개시켜 자서전 밖의 통합된 자아를 비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사이에 시간을 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간극을 인정해야만, 양자가 상호 해석하는 관계를 구성해서 그런 균열이 자서전을 추진시키는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위험이 되어버린 미래는 실패한 기획을 기억하는 행위로서만 역사에 존재한다는 폴 드 만의 지적은,⁴⁾ 상상력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 대해 워즈워

-
- 1) Forest Pyle, "Wordsworth: The Poetics of Enshrinement," *The Ideology of Imagination: Subject and Society in the Discourse of Romanticis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75.
 - 2)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1799, 1805, 1805*, edited by Jonathan Wordsworth, M. H. Abrams & Stephen Gill (New York: Norton, 1979)
 - 3) 폴 드 만은 워즈워스의 "Essays upon Epitaph"를 자서전적인 글로 보고 워즈워스가, 인간의 불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예시함으로써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가능하다고 하였다. Paul de Man, "Autobiography as De-Facement," *The Rhetoric of Roman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72.

스가 느낀 바를 말해주는 듯하다. 프랑스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의식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서전에 다루는 것은 프랑스 혁명을 다시 읽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서전에 혁명의 유산을 담아내는 것은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독자들과 후대에 남기고 알리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폴 드 만의 논의는 프랑스 혁명과 『서시』의 관계를 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논지는 워즈워스가 혁명의 실패만을 곱씹어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치유력으로서 상상력을 강조하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간과한다.

역사와 낭만주의 문학이라는 화두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는 앨런 류의 논의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⁵⁾ 워즈워스가 역사적 “문맥을 멀리하거나 부인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시인을 그 자신의 맥락에 관련시키는 이차적인 차이화를 통해서, 문학 텍스트가 유기성이라는 텍스트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덮어 가려지는 내적인 모순과 모호함의 조직으로서 출현할 때, 역사의식은 시적 감수성이 된다.”⁶⁾ 창작시점에 상상력을 사로잡은 현상적 사건을 상상력으로 봉쇄하려는 워즈워스의 노력이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동시에 부인(否認)이라고 하였다. 또한 류는 워즈워스의 자서전의 정확성을 역사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은, 자서전이 낭만주의 시인들이 성취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형태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서전은 개인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역사기술(historiography)이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자서전은 그것을 기록하는 저자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합의된 계약하에 성립하는 글쓰기이다. 파일이 워즈워스의 상상력을 역사의 부인(혹은 억압)이 아니라 ‘자아’와 ‘역사’가 연결되는 매개가 된다고 한 것은 류의 주장을 반박하는 예가 된다. 파일은 역사가 자연과 자아의 교류에 의해 억압된다는 류의 주장에 반대하고,

4) The future is present in history only as the remembering of a failed project has become a menace. Paul de Man, “Wordsworth and Herderlin,” *The Rhetoric of Romanticism*, 58-59.

5) Alan Liu, *Wordsworth: The Sense of History* (Stanford: Stanford UP, 1989), 394-95.

6) Historical sense becomes poetic sensibility when, through a second order differentiation implicating the poet in his context even in his attempt to distance or deny that context, the literary text emerges as a tissue of internal contradictions or ambiguities covered over by its own ideology of unity (characteristically declared through such critical “ideas” as Organic Unity, One Life, or Imagination). Liu, 395.

오히려 상상력 때문에 자아와 역사는 통합이 가능하다, 즉 공감이라는 상상력의 다른 이름에 의해 자아와 세계가 매개된다고 한다(Pyle 197-98). 정신과 역사의 역동적인 관계가 워즈워스로 하여금 자서전을 쓰게 한 것이다. 류의 주장은, 워즈워스가 창작당시 역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상상력이나 정신의 유기적 힘에 의지해 문학 텍스트를 썼을 때 결과적으로 역사를 지우고 망각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신역사주의 비평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었다. 맥간은 낭만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낭만주의 비평이 낭만주의 작가들이 보여준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동참한다고 지적하였지만, 그의 신역사주의는 지워지고 환치된 것, 즉 텍스트에 없고 저자가 말하지 않은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텍스트 연구에는 소홀하게 되고 결국 텍스트와 저자 모두를 지우는 비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⁷⁾ 폴 드 만도 워즈워스의 텍스트 자체가 역사에 대한 “거짓 믿음”(bad faith), 즉 역사를 지우고 치환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준다고 하기 때문에,⁸⁾ 해체 비평도 역사 지우기를 지적한 신역사주의 비평의 오류를 공유한다. 이들은 작품에 구현된 사회적 경험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서 이데올로기의 틀로 재단하고 있다. 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비판하는 에이브람스의 비평, 즉 워즈워스가 외부 역사에서 정신적 위기를 받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상력이라는 내면 세계로 침잠했다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시』의 해석에는 프랑스 혁명의 실패와 그에 따른 워즈워스의 정신적 극복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가 구체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프랑스 혁명편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바로 혁명에 실망한 시인이 내면으로 침잠해서 상상력의 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워즈워스가 중점을 둔 것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신적 위기의 시기에 겪은 정신의 변화와 혁명의 이념과 경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혁명에 동조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작업이다. 틴슨도 지적하듯이, 흔히 워즈워스의 비평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자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인이 태어난다고 말해왔다. 이런 비평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한 틴슨은 “변절과 각성”(apostasy and disenchantment)의 갈등에서 워즈워스의 창조 정신이 기인한다고 주장한

7) Jerome J. McGann,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8) Paul de Man, “Time and History in Wordsworth”(1967, 1987), *Romanticism and Contemporary Criticis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3).

다.⁹⁾ 이와 같은 톰슨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적이다. 왜냐하면, 혁명의 실패 후에도 워즈워스에게는, 여전히 자유, 이성, 평등, 완벽함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특히 험난하고 갱생하지 않는 현실 사이의 긴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열망하지 않으면, 변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변절은 도덕적 실패이자 상상력의 실패이다. 왜냐하면, 변절은 경험의 진정성을 망각하거나 부적절하게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실패인 것이다. 다시 말해, 변절은 작가 자신의 이전 실존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워즈워스는 그러한 열망을 내적인 믿음으로 변화시켰고, 추상적인 인간에서 떨어져 실제 사람들, 평범한 민중(the common people)에게로 관심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톰슨의 논지를 따라가는 것은, 워즈워스의 과거와 현재를 인위적으로 둘로 나누지 않고서 그의 정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비문에 관한 글」에서 호르는 강가에 선 아이가 강물의 「기원과 지향점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상하듯이,¹⁰⁾ 과거와 현재의 균열된 두 자아는 언어를 통해 시를 쓰는 작업 자체에서 연결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시』의 창작에 있어서, 역사적 환경이 변한 보수반동적인 시기의 자아는 프랑스 혁명의 악몽을 겪은 과거의 자아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혁명에 심취한 자신의 과거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다.¹¹⁾ 이 점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부분을 읽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워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판명된 시기에 자신이 심취했던 혁명 이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혁명의 전개 양상을 목격하고서만 가질 수 있는 믿음, 인간성의 올바름에 대한 확신을 시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혁명 이념을 사장(死藏)하지 않고 프랑스 혁명의 그릇된 전개양상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의 오류를 지적하고 거기에 심취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망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오류를 기억함으로써 그것이 성취하려 한 인간 해방의 비전을 더욱 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경험과 1790년대의 급진 사상을 받아들인

9) E. P. Thompson, "Disenchantment or Default? A Lay Sermon". *Power and Consciousness*, edited by C. C. O'Brien & W. D. Vaneech (New York: New York UP, 1969), 149-181.

10) William Wordsworth, "Essays upon Epitaph,"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edited by W. J. B. Ow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124.

11) 급진 사상과 혁명에 경도된 후에 워즈워스가 그런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혁명의 이상적인 이념 또한 버리지 않는다. 이는 본고의 입장이 E. P. Thompson의 논의에 동의한다는 말이다.

경험을 하고 나서, 워즈워스는 그런 경험을 다시 보는 『서시』를 창작하였으며, 과거의 폐기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에 연속된 자아를 재구성해가는 작업을 하였다.

프랑스 혁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9권은, “강물”이 돌아서 자신이 흘러 온 경로를 재듯이, 여행자 워즈워스도 그가 지나온 곳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로 시작된다. 여기서 여행자는 지나온 곳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다는 정도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에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워즈워스는 『서시』의 집필에서 혁명 경험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만 했다. 자신이 어떻게 혁명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프랑스 혁명의 현장에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혁명의 부정적인 양상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상세히 기술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서시』의 다른 부분에서처럼 내러티브가 파편적이지 않고, 비교적 순차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과거와 너무나 다름(Oh, how much unlike the past! 9: 22)을 인식한 상태이다. 이미 프랑스 혁명의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혁명이 진행되는 당시를 회고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에는 당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바뀐 생각이 덧씌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혁명 편에서 복잡한 혁명의 전개 양상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정을 밝힌 후에, 12권의 초두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의 상상력이 어떻게 손상되었고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낸다.

Long time have human ignorance and guilt
 Detained us, on what spectacles of woe
 Compelled to look, and inwardly oppressed
 With sorrow, disappointment, vexing thoughts,
 Confusion of the judgment, zeal decayed,
 And, lastly, utter loss of hope itself
 And things to hope for! (12: 1-7)

여기서 오랜 동안 “우리를 억류시킨 인간의 무지와 죄의식”은 워즈워스의 개인적 경험에 관한 언급인 동시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의 대변혁기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워즈워스는 여기서 인간의 무지와 죄의식이 “나를” 억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류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체험한 혁명 경험의 끔찍함이 사실은 개인적인 범주를 넘어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 나아가 역사의 한 장에 해당되는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은 “비탄의 광경”을 보여 주었으며, “슬픔”과 “실망,” “혼란스런 사유,” “판단의 혼돈,” “쇠퇴한 열정,” “희망 자체와 희망할 대상의 철저한 상실”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역사 현장에서 다수의 오판으로 야기된 혁명의 실패라는 문맥에서, 위즈워스는 “나는 나 자신을 상대로 싸웠다”(12: 70)고 말한다. 위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그로 인해 창작 시점에서는 그런 자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서 프랑스 혁명을 재해석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범죄 행위에 가까운 9월 대학살은 위즈워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으나, 그 후에 루이 16세의 처형과 공화국의 건설로 인해, 더 나은 대의명분의 승리를 위한 확신에서 그 극악무도함이 덜 부각되었다.

Lamentable crimes,
 'Tis true, had gone before this hour, dire work
 Of massacre, in which the senseless sword
 Was prayed to as a judge; but these were past,
 Earth free from them for ever, as was thought —
 Ephemeral monsters, to be seen but once;
 Things that could only show themselves and die. (10: 41-47)

무정한 칼이 재판관처럼 사람들을 죽였지만, 위즈워스는 이런 끔찍한 일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다시는 지구 위에서 나타나지 않을 하루살이 괴물처럼 한 번만 모습을 드러냈다가 영원히 죽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위즈워스는 9월 대학살을 통탄할 만한 범죄로 묘사한 후에, 이 사건이 과거 지사가 되었다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이러한 위즈워스의 개인적 해석은 뒤에 올 더 많은 참혹한 사건을 생각해 볼 적에, 미래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읽힌다. 이런 바람은 현실에서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체험에 좌절된다.

I crossed the square (an empty area then!)
 Of the Carrousel, where so late had lain
 The dead, upon the dying heaped, and gazed

On this and other spots, as doth a man
 Upon a volume whose contents he knows
 Memorable, but from him locked up,
 Being written in a tongue he cannot read,
 So that he questions the mute leaves with pain,
 And half upbraids their silence. (10: 55-63)

9월 대학살이 일어난 광장을 찾았을 때 그는 대량살육의 현장을 “보고 만졌다”(saw them and touched 10: 75)고 술회한다. 이 전에 워즈워스가 전체군주제나 공화국 같은 통치체제를 생각했을 때, 그는 9월 대학살 같은 사건이 가슴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혁명에 수반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학살의 현장을 답사할 때, 그는 중요한 책을 앞에 펼쳐놓고 언어를 몰라서 읽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그는 말없는 책장들에게 고통스럽게 질문을 해보지만, 그들의 침묵만 탓해 볼 뿐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다. 이제서야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세계에 있으며, 어떤 땅을 밟고 있는지, 어떤 공기로 숨을 쉬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것은 그가 정치체제를 생각하다가 놓친 것들(죽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 앞으로도 계속될 유혈사태)을 다 이해할 길은 없지만 분명히 본능적으로 감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지나간 두려움은 거의 다가올 두려움처럼 나를 짓눌렀다”(10: 71-72)는 표현에서 나중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유혈사태가 더 반복될 것을 예감한다. 이념상 이상적이나 실천에서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혁명을 읽고 해석해야하는 과제에 대면해서, 워즈워스는 이제 이해할 수 없을듯하고, 읽기조차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이 자유의 이름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생각도 못해 봤을 것이다.

워즈워스는 도시 전체가 자기에게 “더 이상 잠자지 마라”(Sleep no more 10: 87)고 외치는 것을 들은 듯해서, 혁명의 대량 살육을 맥베쓰의 던컨왕 살해처럼 부자연스럽고,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처럼 느낀다.¹²⁾ 이는 워즈워스의 연루의식(complicity)과 프랑스 혁명의 자연스럽지 못한 추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다. 워즈워스가 축제같은 혁명에 동요되고, 관광객처럼 혁명 이념의 실현 현장인 파리에 들뜬 기분으로 달려갔다고 해도, 그는 혁명의 진

12) 맥베쓰는 자연스런 살인 요건이 아닌 왕, 손님, 잠자는 사람인 던컨왕을 살해했고, 이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Geoffrey H. Hartman,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1), 244.

행에 있어서 자신을 단지 관찰자로 역할 지우지 않는다. 비록 위즈워스가 혁명 주동자들처럼 적극 행동하지 않았지만, 전체군주를 뒤엎고 공화국을 건설하는 혁명의 대의를 적극 지지하였으므로, 그러한 대의가 불러온 피의 축제는 그에게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루베가 연단에 올라가 혼자 로베스피에르를 고발하는 장면은 위즈워스의 양가적인 태도를 드러내 보여준다. 루베는 자신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혼자서 로베스피에르를 탄핵하였고 나머지 동료들은 그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자서 로베스피에르에게 당한 것이다. "I, Robespierre, accuse thee!" (10: 113) 라는 애매한 문장 구조로 인해, 루베의 말을 자서전에 그대로 옮겨 적은 위즈워스는 자신도 공포정치의 핵심 인물 로베스피에르를 고발함과 동시에 자신을 로베스피에르와 동일시하여 자책하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위즈워스가 보기에, 전체군주를 폐위하고 공화국이라는 정부 형태가 민중의 자유를 성취하는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정당한 혁명의 이념에 비해, 로베스피에르에서 정점을 이루는 혁명 주동자들이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광기어린 행태는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위즈워스는 공포정치가 끝난 날을 따로 적을 만하다고 말한다.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소식을 듣고 위즈워스는 기쁜 마음만큼 슬픔을 느낀다 (10: 528-29). 그날의 무거운 심경은 위즈워스로 하여금 스승님의 묘지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8년이 지난 후에 스승님 묘지위를 덮은 잔디와 묘비를 보고서, 그는 스승님의 말씀과 목소리, 얼굴표정을 떠올리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었다. 혁명의 이념이 그릇되게 실현된 공포정치 시기가 끝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혁명이 실제로 차단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심정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의 처형은 "영원한 정의" (10: 577)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마땅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광기는 날날이 밝혀져, 이제 세상은 "정의와 평화" (10: 589)를 향해 전진해 갈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영국 침입과 제국주의화는 위즈워스에게 그런 정의와 평화의 길이 펼쳐지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전자는 영국이 프랑스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으로, 후자는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이 프랑스의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극악무도함은 극단에 이르러,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던 대의명분은 이제 찾아볼 길이 없도록 하였다 (11: 208-209). 로베스피에르의 죽음과 스승의 묘지를 방문하는 행위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위즈워스에게 일종의 "애도" (mourning)가 갖는 느낌을 준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인 극단을

상징하는 로베스피에르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 후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혁명의 이상적 이념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을 지도해준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믿었던 신념의 실패를 애도하는 것이다.

9월 대학살과 루이 16세 처형, 잇따른 공포정치와 무정부상태 때문에 영국인들은 더이상 명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프랑스 혁명을 보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반혁명, 반프랑스, 보수 반동의 분위기를 양산하여 프랑스가 선전포고했을 때는 국가적인 위기로 여겼다. 모두가 프랑스와 싸우는 영국의 승리를 기원할 때 워즈워스는 혼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프랑스의 승리를 몰래 기원하였다(10: 289-99). 워즈워스는 영국의 어느 지역보다 “유구한 소박함”(ancient homeliness 9: 216)을 보존하는 호수지역에서 자랐고, 그 지역의 민주적인 분위기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도 동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프랑스와 맞서 전쟁을 하는 것은 워즈워스에게 수치스러운 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었다. 영국이 공공연한 전쟁으로 프랑스의 자유에 반대하는 일로 보였던 것이다(11: 174-75). 워즈워스는 보피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자유, 인간에 대한 희망, 정의와 평화”를 낙관하였기에, 보피가 “그의 심오한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정당할 뿐 아니라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했다(9: 394-407). 그는 혁명의 부정적인 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명의 이념은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혁명가가 되기 오래 전에 이미 워즈워스는 “내 마음을 모두 민중에게 주었고, 내 애정 또한 그들의 것이었다”(9: 122-24)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억압을 뒤엎는 것은 자유를 허가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11: 162-63).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받은 다수의 민중은 이제 더 이상 억압받아서 안된다(11: 193-94). 이런 생각을 한 워즈워스에게 공포정치의 실각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 뒤의 혼란스런 정치가들과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은 억압을 지속시킬 사건으로 보였다. 워즈워스가 이 시의 주제라고 말하는 “청년기의 실수”(juvenile errors 11: 54)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동시에 미성숙한 정치가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And the errors into which I fell, betrayed
 By present objects, and by reasonings false
 From their beginnings, inasmuch as drawn
 Out of Nature's way by outward accidents,
 And which was thus cofounded more and more,

Misguided and misguiding. So I fared,
 Dragging all precepts, judgments, maxims, creeds,
 Like culprits to the bar; (11: 287-95)

이상적인 이념이 행동으로 실현되었을 때, 프랑스 혁명은 그 행동의 전개가 이념만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혁명의 전개를 목격하고서 워즈워스는 “배반당했”고 외부 사건 때문에 자연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자연의 경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도하고 오도된 것이고, 워즈워스 자신은 범인이 감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감수성이 흔들렸고, 확신도 잃어 버리게 되었다고 토로하면서, 혁명의 부정적인 전개양상 때문에 절망해서 도덕적 질문을 포기했다(11: 305)고 고백한다. 챌들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워즈워스의 정신적 위기가 공포정치와 유비를 이룬다고 지적한다.¹³⁾ 도덕적 감수성은 조국 영국에서 길러진 전통과 선입견에서 비롯되는바, 추상적 사고를 행동에 옮긴 혁명의 현장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의 도덕적 감수성의 기반이 흔들렸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챌들러는 에드먼드 버크가 혁명 발발 1년 만에 공포정치와 그후 일어날 부정적 양상을 정확히 예측한 것은, 워즈워스와 같은 젊은 급진파의 운명을 정확히 예측한 것과 같다고 한다. 공포정치는 워즈워스로 하여금 혁명에 회의를 갖게 하였고, 이런 내적 갈등은 자서전 기획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워즈워스의 묘사를 단적으로 압축하는 표현을 보자.

This was the crisis of that strong disease,
 This the soul's last and lowest ebb; I drooped,
 Deeming our blessed reason of least use
 Where wanted most: (11: 306-09)

그는 당시를 “강력한 질병이 든 시기”이자 영혼이 가장 낮게 드리워진 때라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성의 적나라한 형태를 열광의 대상”(our Reason's naked self/The object of its fervour 11: 234-35)으로 삼았던 혁명은, 워즈워스로 하여금 축복받은 인간 이성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무용하

13) James K. Chandler, *Wordsworth's Second Nature*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56-57.

다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 워즈워스는 낙담한 것이다. 워즈워스는, 인간에게 이성이 고귀한 것이라면, 어찌서 편협함에 눈이 멀어, 저속한 야망과 무절제를 갈망하는 노예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12: 70-74). 프랑스 혁명이 “합리적 자유”(rational liberty)를 내세웠다면 마땅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텐데, 실은 그렇지 못했음을 워즈워스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9권에서 워즈워스는 당시를 “전반적인 소요의 시기”(an hour of universal ferment 9: 164-65), 즉, 가장 온건한 사람마저 동요하는 시기로 표현하고서, 당시에 이미 미래에 혁명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그려본다.

Oft said I then,
 And not then only, 'What a mockery this
 Of history, the past and that to come!
 Now do I feel how all men are deceived,
 Reading of the nations and their works in faith —
 Faith given to vanity and emptiness —
 Oh, laughter for the page that would reflect
 To future times the face of what now is!' (9: 167-76)

시인은 혁명의 열기가 가득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했었고, 회고하면서 글을 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인간 역사의 진보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으나, 유혈사태가 극단적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과 피에 굶주린 모습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보가 아닌 역사에 대한 조롱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배반당했음을, 공허한 허상을 믿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혁명에 대한 심취와 혁명의 부정적인 양상이었다. 1805년판에서는 “I have been deceived”였는데 1850년판에서 워즈워스가 “나”를 “모든 사람들”로 바꿈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충격과 악몽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보편적인 문제, 즉 역사의 과제임을 지적한다. 워즈워스는 혁명 당시에 소용돌이에 휩쓸렸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경험으로 인해 더 건전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9: 331-33). 혁명은 급류처럼 그에게 몰려왔지만, 책과 일상 생활의 도움이 있었기에 혁명적 이상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되 사건으로서 혁명의 실패를 받아들임으로써 통합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난 인간 본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목도한 워즈워스에
 게 그런 어두운 경험은 단지 망각하고 묻어 두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시간의 자국들”(spots of time)에서 잘 드러난다.¹⁴⁾

There are in our existence spots of time,
 That with distinct pre-eminence retain
 A renovating virtue, whence, depressed
 By false opinion and contentious thought,
 Or aught of heavier or more deadly weight,
 In trivial occupations, and the round
 Of ordinary intercourse, our minds
 Are nourished and invisibly repaired; (12: 209-215)

“거짓 의견”과 “논쟁적인 사고,” “더 무겁거나 더 치명적인 무게를 가진 것”
 에 의해 절망을 받지만, 바로 그런 어두운 경험 후에 가질 수 있는 “회복하
 게 해주는 미덕”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양분을 얻고 보이지 않게 치유가 된
 다. 이 미덕에 의해 기쁨은 고양되고, 우리의 정신이 높을 때는 더 높게, 추
 락하면 이 미덕이 우리를 들어 올려 준다(12: 216-18). 워즈워스는 명백히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시간의 자국들의 예로 제시하는데, 위의 인용문에
 서는 자신의 경험이 “우리”의 보편적 경험과 맞닿아 있음을 설파한다. 시간
 의 자국들이 갖는 회복시키는 힘은 결국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인간
 의 “정신이 주인이고, 외부의 감각은 마음의 의지에 복종하는 하인”임을 심
 원하게 알려주는 인생의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12: 219-23). 워
 즈워스는 혁명의 이념에 빠졌던 시기 이후에 자연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

14) “시간의 자국들”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유년 시절 워즈워스의 두려운 경험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관한 강한 인상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황야에서
 길을 잃어 마추친 교수대에서 받은 두려움, 바람을 받으며 물둥이를 이고 가는 소
 녀, 크리스마스에 형과 집에 데려다 줄 마차를 기다리던 때의 경험이다. 이 경험들
 은 모두 워즈워스의 유년시절 경험으로 처리되었고, 그 때 받은 강한 느낌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들이 주는 느낌은 언어로 명확히 잡히지
 않는 감정의 결, 두려움의 강도를 말해 준다. 동시에 『서시』 전체에서 풍기는 절려
 있는 느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표현하려는 대상에 맞는 정확한
 언어를 찾아내지 못해 다른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워즈워스의 인생을 글로 표현하려는 자서전 쓰기에서 안고 있는 문제로
 보인다.

게 되었고, 경험의 문지방을 넘어 새롭게 상상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 사랑이 인간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말할 때, 그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자연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인간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공포정치 뒤에 들어선 정부는 여전히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주었고, 청년 시절 자연에 영향받은 위즈워스의 자아는 이제 가슴아픈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서, “자연사랑”을 “제 이의 사랑” 즉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시켰다(10: 431-36). 자연의 “아름다움과 두려움에 의해 똑같이 자양분을 얻어”(Fostered alike by beauty and by fear 1: 301) 성장한 시인은, 그 자연의 은총 때문에 인간이 신성하다고 말하는데, 혁명의 소용돌이를 겪은 후에 “제 이의 사랑” 덕분에 행복한 꿈보다 깨어있는 생각이 더욱 풍부한 것처럼 자연의 은총을 더욱 갚진 것으로 느낀다. 그런데 혁명 경험 후에 다시 보는 자연은 예전의 자연과 다른 “제 이의 자연”이다. 이제 자연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사랑이 있기에 더 이상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14: 162-70).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받은 강한 느낌에 대한 기억은, 뒷날 위즈워스가 혁명의 이념이나 고드윈 사상에 빠져들었을 때, 그리고 그 후 그런 경험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되었다. 한때 우리가 강했다면, 느낌은 느낌의 도움을 받아 다시 느껴질 수 있고, 강함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12: 269-71). 흐르는 강물이 지나온 경로와 연결되어 있듯이, 이미 지나간 과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즈워스가 이상적인 이념의 실천과 관련된 정치 세계에 관여한 시절에도, 정치 활동을 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가꾸어 온 훼손되지 않은 상상력의 부름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는 “시간의 자국들”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억을 가능하게 한 힘, 즉 상상력에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다. 단순한 어린 시절에 인간의 위대함의 토대가 있다(12: 272-77)는 것은, 위즈워스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이념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인간 본연의 올바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재차 밝히는 말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읽으려는 행위는 자서전의 기획에서 핵심적이다. 인간의 힘이 숨은 곳에 다가가려 하나, 그것들은 단혀 버리는 현상(12: 277-80), 기억의 아득한 저편을 잡을 수 있을 듯하지만, 과거가 시간과 무의식의 작용으로 이미 달리 보이는 현상은, 시를 통해 과거를 지면에 담아 내려 하지만 시인이 전달하려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기가 그만큼 어려움에 비유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은 연에 “언

어가 느낌에 실체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미래의 회복을 위해 과거의 정신을 간직”하려 한다는 말이 적합한 문맥을 찾은 것이다(12: 283-86). 워즈워스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것을 기억하는 힘에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의 토대를 보았지만, 미래의 회복을 위해 과거의 정신을 보존하겠다는 말의 이면에 워즈워스가 젊은 시절 경험한 이념의 소용돌이, 혁명과 그 뒤의 정치적 급변과 같은 상황 역시 인간 이성의 오류로만 파악하지 않고, 부정적인 양상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적인 사회 구성을 열망하고 그 실천에 노력하는 면만은 그것대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시』의 구조는 프랑스 혁명 편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워즈워스가 고민을 많이 했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서시』의 창작과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혁명 편에 돌입하기 전에 워즈워스는 미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8권에서 자연 사랑이 인간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였다고 밝힌 후에 혁명을 서술하고 나서, 12권에서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을 가르쳐 준 자연에서 대면한 경험을 기억하는 정신에서 회손된 상상력의 회복을 말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위치한 혁명 편은 자연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 젊은이가 경험한 개인적 체험이자, 역사의 한 장에 대한 증언이다. 그 후에서야, 워즈워스는 상상력의 매개로 가능한 시간의 지점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790년대의 급진 사상과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고 실망한 경험은 워즈워스 내부에 큰 충격과 갈등을 일으켰고, 워즈워스는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과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시』라는 자서전적 장시를 창작하는 의의를 찾았다. 혁명과 이데올로기의 급류에 대한 경험과 자의식적인 자책감에서 워즈워스의 시 창작이 가능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그의 시를 읽는 것이, 정확한 독해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그릇된 독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Works Cited

- Chandler, James K. *Wordsworth's Second Nature*.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De Man, Paul. "Autobiography as De-Facement." *The Rhetoric of Roman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Time and History in Wordsworth"(1967, 1987), *Romanticism and*

- Contemporary Criticis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3.
- _____. "Wordsworth and Hölderlin." *The Rhetoric of Roman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McG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Hartman, Geoffrey H.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1.
- Liu, Alan. *Wordsworth: The Sense of History*. Stanford: Stanford UP, 1989.
- Thompson, E. P. "Disenchantment or Default? A Lay Sermon." *Power and Consciousness*. Eds. C. C. O'Brien & W. D. Vanech. New York: New York UP, 1969.
- Pyle, Forest. "Wordsworth: The Poetics of Enshrinement." *The Ideology of Imagination: Subject and Society in the Discourse of Romanticis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Wordsworth, William. "Essays upon Epitaph."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Eds. W. J. B. Ow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 _____. *The Prelude: 1799, 1805, 1805*. Eds. Jonathan Wordsworth, M. H. Abrams & Stephen Gill. New York: Norton, 1979.